

건강 칼럼

중년남성들의 적, 전립선 암

신 워렌 버핏, 덩샤오핑, 미테랑, 아키히토, 넬슨 만델라, 로버트 드니로, 로저 무어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전립선 암으로 투병중이거나 운명을 달렸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립선암은 부자병, 황제 의암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중·장년 남성의 건강에 큰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알크기의 구조물로서 소변과 정액이 통과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전립선액을 생산한다.

따라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볼 때와 정액을 배출할 때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는데 전립선암은 위와 같은 전립선에 암이 생긴 것을 말한다.

전립선에는 여러 형태의 세포가 존재하는데 전립선암의 99% 이상은 조직에서 분비물을 내보내는 샘 세포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샘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전립선 암 이라고 한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초기에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 검사로 직장수지검사와 혈청 전립선특이항원 (PSA)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들은 매년 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직장수지검사에서도 전립선에 경결



최 세 민
경상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이 만져지거나 PSA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된다.

조직검사로 전립선암이 확인이 되면 MRI와 뼈스캔을 시행하여 종합적으로 전립선암이 몇기인지 임상적으로 병기를 파악한다.

전립선암을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분류하여 치료한다.

저위험군에서는 기대여명이 10년 미만일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게 되며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

려한다.

중위험군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하며 고위험군에서는 수술, 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를 함께 병행하기도 한다.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호르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추후 약제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항암치료도 함께 시행한다.

전립선암 수술에 있어 10년 미만 하더라도 개복 수술을 주로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는 최신 의료기기인 다빈치 로봇 수술이 주로 시행된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로봇 팔이 손가락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시야가 3차원 입체 영상이다.

10배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전립선암은 진행속도가 비교적 느린 암에 속한다.

치료방법이 다양하므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치료방향을 결정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독자제언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아동학대 이제 그만

사람으로만 키워도 부족한 자녀들, 과거에 비하면 아동학대가 많이 줄었다 단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진권자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이 높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망한 아이들 중 대부분이 사망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왔다.

자녀학대에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인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행동들도 아동학대이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정서적 학대로 시

작되지만 정서적 학대는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아 부모에게 교육이나 상담 같은 처벌마저도 내려지지 않는다. 어떠한 조치 없이 피해 아동들이 학대 후에도 계속해서 받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외관상 상처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우울증, 충동 조절 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다. 더 이상 '교육차원으로 그럴 수 있지' 하며 우습게 남길 일이 아니다.

급증한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은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반감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할 존재이다. 하루빨리 자녀학대가 근절되어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

백요셉 고청경찰서 흥덕파출소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브렉시트 코 앞인데... 영국 의사당 앞 시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근 시민들이 브렉시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손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4 장관 시대' 전북 발전 절호의 기회

지금은 전북 발전을 도모할 절호의 때다. 이번에 전북 출신 장관 세 명이 새로 임명돼 기존의 여성가족부 진산미 장관을 포함해 '네 장관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임명하게 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안 출신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임명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고창 출신 진영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익산출신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부 부지사가 임명됐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정부부지사로 일했기 때문에 전북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공항 건설 등 전북의 현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리라는 기대가 크다. 그레도 그게 아직은 미래의 일이기에 말할 것이 없다. 전북의 뒤편에 대하여 눈길을 주다보면 설 설한 지금이다. 처음 조각 때는 전북 출신 인사 중에 윤 수석 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이었던 것이다. 그게 못내 아쉬웠는데 이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계속 전북 출신

이 중용돼 전북 발전의 청신호로 여겨지는 것이다.

지금은 다 함께 전북 발전을 도모할 때다.지역을 견인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사심을 버리고 지역 발전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상생과 협치의 미덕을 보여야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짐작 못하는 바 아니지만 도민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줬던 것이다. 그것은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었다.우리 전북이 낙후된 원인으로 정부의 편견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도내 힘 있는 이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도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나 힘이 있는 이들은 도민과 함께 뚝뚝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제 몫을 챙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을 모으지 못하면 역척스럽게 보일 리 만무하다. 그리고 현안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 어디에 소속돼 있는 우리 몫을 온전히 챙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은 전북 발전을 위해 총역량을 발휘할 때가 아닐 수 없다.

내년 예산 증액 위해 치밀한 준비를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 전북도가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직은 때가 길게 남았으므로 워밍업 기분일 터이다. 그레도 예산 증액 명분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는 저 지난해보다 4643억 원이 많은 7조328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전북도가 예산의 양보다도 질을 언급할 때만해도 7조원 예산 확보가 그렇게 어렵나 라고 염려를 했는데 그게 기우였음이 기본 좋게 입증됐다. 전북도가 예산의 질을 언급한 그레로 새만금 SOC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 1조1186억 원을 확보한 것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평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레도 민족을 만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 발전 매진 발언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지만 지금은 정서가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지역 발전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두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타지역의 흔들기가 아주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보수 언론들을 통한 언론 플레이로

도 모자라 미국 언론까지 동원해 막장 드라마를 보였던 수도권의 악의를 상기해야 한다.

전북도는 계속해서 실력발휘를 해야 한다. 이번엔 '네 장관 시대'를 맞게 된 것은 그 실력발휘의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바로 그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전북도가 지난해 보여준 예산 7조원 돌파는 도민의 열망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도민들은 내년분 예산 증액도 기대하는 열기가 대단하다.

전북도는 도민의 열기에 고무되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내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쳐진 채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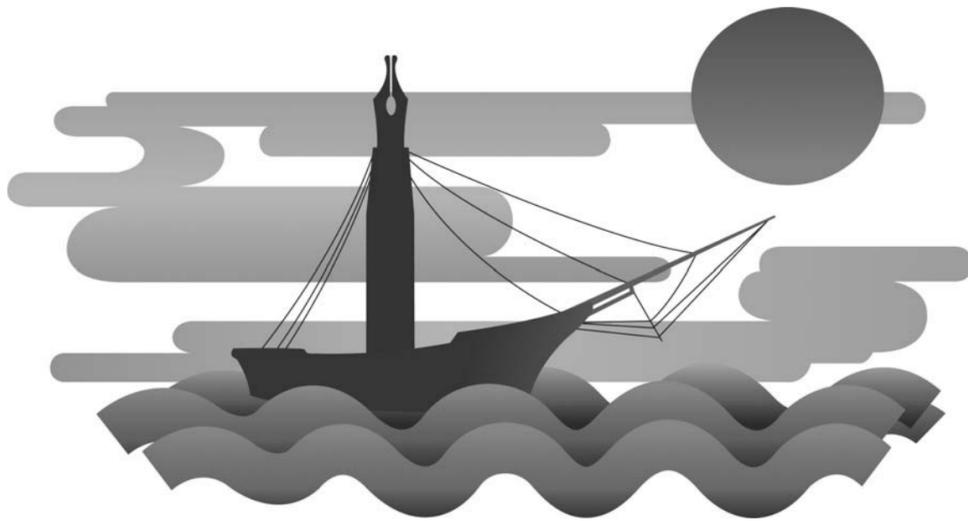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발전 협력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도시사와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는 도민들의 주문은 한결 같다. 계속해서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게 도민들이 항상 바라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독자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